

새 책

▶페스트 제국의 탄생-제3차 페스트 팬데믹과 동아시아(신규환 지음)=이 책은 19-20세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제3차 페스트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을 계기로 서구열강과 동아시아 각국이 의학적 체계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의과학 지식을 어떻게 구축하고, 그 지식이 국가건설과 방역체계 수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역사공간. 1만8000원.



▶무인도에 살 수도 없고-인간에게 성숙이란 무엇인가(소노 아야코 지음)=이 책은 나 자신에게 집중되게 마련인 행복 앞에서 타인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전한다. 저자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이후 발표한 에세이로, 재난 시 드러난 상대방에 대한 유아적인 인식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성숙에 대한 통찰을 담았다. 책임은고양이. 1만1900원.



▶어린이 마음 시문-잡자기 인기 짱(안병현 지음·그림), 우리 둘이라면 문제없지(소복이 지음·그림), 스트라이크는 내게 맡겨(박근용 지음·그림) 등 3권으로 구성됐다. 이 시리즈는 '시를 읽는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 시와 웹툰을 엮어 만든 결과물이다. 김용택 시인이 초등 국어 교과서 수록 시를 비롯해 어린이들이 읽으면 좋을 시를 고르고, 세 명의 작가들이 시에 그림을 입혔다. 창비교육, 각 1만2000원.



▶마음 약한 고슴도치(올리카 케스테레 지음·그림, 윤영희 옮김)=참견하는 친구들 때문에 이리저리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슴도치가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따스하게 담은 그림책이다. 스웨덴 작가 올리카 케스테레는 갈팡질팡하다가 정말 어렵게 자신의 생각을 믿어보는 소심하고 마음 약한 고슴도치의 모습을 공감 가게 그려냈다. 문화과지성사. 1만3000원.



▶세계 음식 한입에 털어 넣기(김인혜 지음·조윤주 그림)=날마다 평균 3끼씩 마주하게 되는 음식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 등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총체적, 압축적으로 담아낸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매일 마주하는 먹거리를 통해 아이들에게 흥미진진하고 색다른 세계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주)사계절출판사. 1만5000원.



▶시소 : 나, 너 그리고 우리(고정순 지음·그림)=누군가와 함께 시소를 타다 보면 하늘에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로 땅으로 내려가기도 한다. 이기고 지는 게 없는 하나뿐인 놀이이기도 한 시소는 신기하게도 양쪽이 비슷한 상태가 됐을 때 신나게 탈 수 있다. 서로의 무게를 맞추고 경쟁이 아닌 서로간의 호흡이 맞을 때 오르락내리락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그림책을 통해 저자는 연대의 힘과 모두의 삶을 응원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길벗어린이. 1만3000원.



우물 설치 방식 빈곤국 돕기 돌아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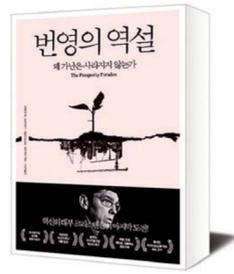
크리스텐슨 등 공저 '번영의 역설'

인프라 제도 개선 등 한계 시장 창조 혁신 도입 필요

그는 1970년대 초 한국에서 2년간 선교사로 활동했다. 당시 그는 가난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목격했다. 한국은 이제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지만 수십 년 전 한 국가와 비슷한 정도로 가난에 찌들었던 나라들은 지금도 살기 어려운 곳이다. "어째서 어떤 나라들은 번영의 길을 찾는데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가난의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파괴적 혁신'의 창시자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 한국에서 시작된 이 질문을 품고 에포사 오조모, 캐런 딜론과 공저한 '번영의 역설'은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책이다.

다수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심지어 더 가난해진 나라도 있다. 저자들은 우물 설치하기를 예로 들며 그 이유를 찾는다. 아프리카 대륙에 자금을 모아 우물을 설치하는 일이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고장 나 방치되고 버려진 우물만 5만개가 넘는다. 그동안 저소득 국가들의 열악한 인프라 개선, 각종 제도 정비, 해외 원조 증대, 대외 무역 활성화 등이 시도되어 왔으나 이는 우물 설치하기와 다를 게 없었다. 이런저런 자원들을 피폐한 지역에 투입하기만 하면 가난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가져온 결과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크리스텐슨은 가난에만 눈길을 두지 말고 기회와 잠재력을 보라고 했다. 20년 전 모 이브라힘이 셀렐을 창업해 아프리카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모두들 비관적 전망을 그렸다. 하지만 셀렐은 6년 만에 530만 고객을 확보해 6억



1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일자리 450만개를 창출했다.

이는 다음 아닌 '시장 창조 혁신'이다. 통찰력에 의존한 시장 창조 혁신은 수익, 일자리, 문화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 성장의 균건한 토대를 만든다. 특히 문화 변화는 시장의 결과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이 새로운 시장에 투자자나 생산자, 혹은 소비자로서 참여함으로써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존엄성을 갖출 수 있음을 이해할 때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 이경식 옮김. 부키. 1만9800원. 전선회기자

생사 갈리는 재난 현장 빠른 판단과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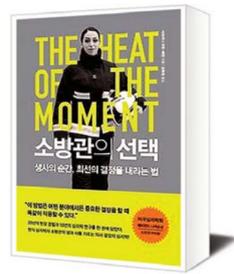
코헨-해턴 박사의 '소방관의 선택'

"알렉스, 톰, 장비를 꺼내. 샌디, 의상 처치용 키트를 맡고, 부상자들을 파악해. 부상자수와 위치, 부상 정도를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그림스는 간이호스를 내리고, 자동차 배터리를 분리해. 그리고 두 번째 구급차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해줘. 자, 모두 무전기 켜서 1번 채널로 맞추고. 빨리빨리!" 그는 도로 위 차들이 뒤엉킨 채 널브러져 있는 사고 현장에서 팀원들에게 임무를 나눠줬다. 찢는 듯한 비명이 들려오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빠른 판단을 하는 거였다.

순간의 의사 결정법과 생생한 경험담을 담고 있다. 저자는 "사람들의 타전을 통째로 파괴하고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재난의 현상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 날이기를 바란다. 코헨-해턴 박사는 너무나 많은 소방관들이 매년 목숨을 잃고 그것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라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 결정을 내리는지 연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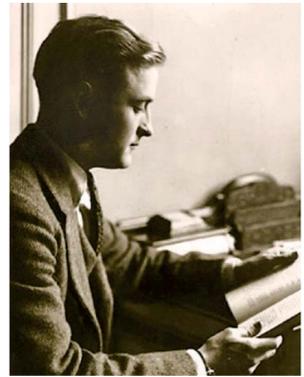
절망적인 광경을 익숙하게 봐야 하는 그의 직업은 소방관. 18세에 입문해 현재 영국 웨스트서식스 소방구조대 소방대장에 오른 심리학 박사 사브리나 코헨-해턴의 '소방관의 선택'은 가장 긴박한

사 결정을 한다고 여겨 그에 따른 훈련과 사후 평가를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관적 의사 결정에 맞는 훈련법과 현장 매뉴얼을 고민하도록 이끈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저자는 10여 년 동안 연구를 하고 20년 가까이 화재와 싸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으로 공감을 꼽았다. 자기가 상상했던 한계를 깨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공감이라고 했다. 김희정 옮김. 북하우스. 1만6500원. 전선회기자



이 책 제주출신 김용성 역 '위대한 개츠비'

쉽게 읽히는 우리말 감성의 '개츠비'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 소설로 꼽히는 '위대한 개츠비'의 소설가 피츠제럴드.

타입지가 뽑은 '100대 영문 소설', BBC가 선정한 '꼭 읽어야 할 고전문학', 192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쓰여진 스콧 피츠제럴드(1896~1940)의 '위대한 개츠비'다. 미국에서만 매년 30만 권 이상 판매되고 국내에서도 여러 역자에 의해 번역된 소설이다.

여기, 우리말로 옮긴 또 한권의 '위대한 개츠비'가 있다. 역자는 서울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며 시인, 번역가로 활동하는 제주출신 김용성씨다. '한국어로 다시 쓰는 셰익스피어 소네트', 에이츠 시선 '첫사랑', '존 키츠 리브레티와 시' 등 우리말 감성을 더해 영문 작품을 번역해온 김 시인은 이번에 '위대한 개츠비 위드(with) 번역 노트'란 이름으로 공들인 작업을 묶어냈다.

그는 기존 역자들이 딱딱한 번역 어투 문장였다 우리말 어감을 살려내지 못한다고 했다. 성균관대 번역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지난 5년 동안 '위대한 개츠비' 우리말 번역

5년 동안 국내 역서 비교 더 나은 번역 연구 결과물 70여 항목 번역 노트 더해



작품 대표작 네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꼼꼼히 비교 분석해 공통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번역'이 될지 연구했다.

책 말미 70여 개 항목에 걸친 번역 노트는 그 결과물이다.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김육동·김영하 번역의 '위대한 개츠비' 두 권을 중심으로 혼란 번역 실수와 오역 사례, 우리말 어법과 쓰임에 맞지 않은 번역, 부자연스러운 번역 등을 살피고 그가 쉽게 읽히는 우리말 표현으로 번역한 문장을 제시했다.

가령 'She didn't see me until I was five feet away'라는 문장을 보자. 김영하는 '5피트 정도 다가갈 때까지도', 김육동은 '1.5미터쯤 떨어진 곳까지'로 각각 번역했다. 김용성은 이를 '서너 걸음 떨어진 곳까지'로 풀었다. '피트'는 국내 독자들이 안 쓰는 표현이라 의미를 알기 어렵고, '1.5미터'는 피트를 미터로 바꾼 것이긴 하나 일상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쓰는 일이 거의 없어서다.

'위대한 개츠비'를 꼭 한번 번역하고 싶었다는 역자는 "우리 소설을 보듯 자연스럽게 읽히고, 자꾸만 읽고 싶어지는 그런 '우리말다운' 번역이 번역 문단에 더 많아질 기대한다"고 했다. 보민출판사. 1만7000원.

전선회기자 sunny@ihalla.com

novita
A KOHLER COMPANY

사랑하는 가족에게
노비타 비데
선물하세요

孝

이벤트 기간 : 2020.05.11 ~ 06.30

novita
노비타 제주점
(구, 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 빙스 ● 요양병원 ● 신제주로터리
▲ 공항 ● 마리나사거리 ● 마리나호텔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제주시 연삼로17(연동)

<p>BD-AFE50N</p> <p>생활방수</p> <p>3년무상A/S</p> <p>₩299,000 ₩229,000</p>	<p>BD-N443(리모컨)</p> <p>방수비데</p> <p>₩299,000 ₩259,000</p>
<p>BD-AE91</p> <p>방수비데 (3way 노즐)</p> <p>₩269,000 ₩229,000</p>	<p>BD-CD51N</p> <p>방수비데 (원적외선 건조)</p> <p>보상판매</p> <p>₩299,000 ₩229,000</p>